

'5천만원으로 월100만원 수익' 속지 마세요

'임대수익률 연 15%' 길거리 허위광고 기승

일부 부동산중개업소 소비자 현혹... 주의 필요

'5000만원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2채 구입, 월 100만원 수익', '임대수익률 연 최고 15%'.

최근 광주 상무지구 거리에 붙은 플래카드 분양 광고 문구다. 실제로 광고 수준의 이익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동산 중개업소의 허위 광고일 가능성이 높다.

5000만원은 실업주금에 불과하고, 1억5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야

하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다. 임대 사업으로 연수익률 15%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

가능한 매물이라도 일반인에겐 차려가 오지 않는다.

침체된부동산 경기를 틈타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분양 및 임대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부 부동산 업체의 영업방식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상무지구나 신도심을 중심으로, 플래카드 방식의 분양 광고가 잇따라 길거리에 걸리고 있다.

주요 실재 매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게재하거나 과장된 수익률 문구를 넣어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적발 및 처벌이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허위·과장광고와 매물이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시 임차조건에 따라 분양가가 임대수익률이 2~3배 가량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광주지역 오피스텔 및 원룸의 공급이 넘쳐 소비자의 발길이라도 끌어보려는 상술이 더해졌다.

상무지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일부 업체들이 계약 한 건에 수백만원의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소 과장된 문구로 소비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위·과장광고 탓에 선량한 중개업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 구체적인 조건은 내놓지 않고, '무조건 수익 보장'식의 광고 탓에 업계의 질서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정병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

주지부장은 "광주지역의 오피스텔 및 원룸을 분양받을 경우, 정상적인 수익률은 7~8% 수준으로, 광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제 수익률은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임대했을 경우를 따져야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이자비용마저 넣어 수익률을 계산해 광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들은 플래카드만 보고 한 군데에 전화할 것이 아니라, 여러 중개업소에 시세 관련 문의를 해서 최대한 피해가 적게끔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수완지구 주민, 상무 주민보다 난방비 월 1만2천원 더 낸다

수완에너지 지역난방 요금 전국 5번째 비싸

홍일표 의원 국감서 지적

광주 수완지구 주민이 상무지구 주민보다 월 1만2000원 가량의 난방요금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21일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난방 사업자별 가스구입 평균 단가 및 요금 지수'를 분석한 결과, 전국 및 광역 단일요금으로 책정된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과 달리 지역난방 요금은 민간사업자 및 지역난방공사 간 요금이 최대 15%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광주 수완지구에 주택용 난방을 공급하는 수완에너지의 Geal (Gram calorie)당 요금은 사계절 단일요금 기준 8만4060원으로, 상무지구에 난방을 공급하는 한국CES의 요금 6만7930원보다 1만6130원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연간 열사용량은 약 8.95Geal로, 이를 환산하면 상무지구의 연간 열 사용요금은 60만5973원(월 5만2644원), 수완지구는 75만2337원(월 6만2694원)이 된다.

연간으로 따지면 수완지구 주민이 상무지구 주민에 비해 14만4364원(월 1

만2000원)의 난방요금 더 내는 셈이 된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 요금은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 산정되는데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이 Geal당 7만9280원임을 감안하면, 수완지구는 이보다 비싼 연간 4만2781원을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수완에너지가 책정한 열 사용 요금은 전국 32개 지역난방 사업자 가운데 단일요금 기준, 경기CES(9만870원), 충남도시가스(8만8100원), 대전열병합(8만8020원), 부산정전에너지(8만6930원)에 이어 전국 5번째로 비쌌다.

반면, 포항 포스코 자가사택에 열을 공급하는 포스메이트는 Geal당 4만2350원으로 전국 최저였고, 상무지구에 난방을 공급하는 한국CES의 경우, 쓰레기소각장의 열을 이용, 상대적으로 싸았다고 조사됐다.

홍 의원은 "지역난 열 요금이 지나치게 차등화 될 경우 임주민들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사업자들이 지역난방공사의 요금을 준용해야 소비자의 불만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필리핀서 집짓기 봉사활동

대한항공 마닐라 지점 임·직원과 용역사 직원 20명은 지난 19일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위치한 케손 시티에서 집 짓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봉사활동에 참가한 봉사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대한항공 마닐라 지점 임·직원과 용역사 직원 20명은 지난 19일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 위치한 케손 시티에서 집 짓기 봉사 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봉사활동에 참가한 봉사자들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대한항공 제공>

올 광주·전남 수출액 600억 달러... 사상 최대

3분기 144억달러... 전년 동기보다 6.2% 증가

올해 광주·전남지역의 연간 수출액이 600억 달러에 육박해 사상 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분석한 3분기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3분기 광주·전남 수출액은 143억9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하며 2분기 1.4% 감소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우리나라 전체 3분기 수출이 2.8% 증가해 그친 가운데 광주·전남 수출 증가율은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북

(19.9%), 경기(17.5%)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3분기 광주 수출액은 36억6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하며 1분기 이후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품목별로는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 각각 44.2%, 2.1% 증가하며 전체 광주 수출증가를 견인했다.

3분기 전남 수출액은 107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하며 2분기 6.5% 감소한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 품목별로는 최대 수출 품

목인 합성수지(2.5%)를 비롯해 경유(5.2%), 제트유(40.7%), 기초유분(30.2%) 등 석유·석유화학 제품 수출이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한편, 4분기 광주·전남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62억3000만 달러로 예상되며 연간 수출액은 전년 대비 5.7% 증가한 592억30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560억4000만 달러로, 이 추세라면 올해 사상 최대치가 전망된다.

/임동홍기자 exian@kwangju.co.kr

| | | | |
|-------------------------|------------------------|----------------------------|----------------------------|
| ▲ 코스피지수 2053.01 (+0.61) | ▲ 코스닥지수 529.34 (+3.65) | ▲ 금리(국고채 3년) 2.84% (+0.02) | ▲ 원·달러 환율 1062.20원 (+1.40) |
|-------------------------|------------------------|----------------------------|----------------------------|

커피 열풍 끝났나

커피값 지출 2분기 연속 감소

불황 속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던 커피값 지출액이 올해 들어 2분기 연속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회복 움직임에도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가 여전히 냉랭해 씬스이가 줄어들었다. 소비자가 직접 내려 마시는 핸드드립 커피의 유행이나 중저가 커피전문점의 증가 등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투자업계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당(전국·2인 이상) 커피 및 차 관련 지출액은 작년 같은 기간(8017원)보다 1.8% 적은 7873원으로 집계됐다.

커피 및 차 관련 지출액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분기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여 왔다.

심지어 미국발 금융위기가 유로존 재정위기의 여파 속에서도 잠시 주춤했을 뿐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불황이 없는 시장'이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가구당 커피 및 차 관련 지출액은 전년 동기(8624원)보다 1.4% 적은 8500원으로 6년만에 처음 감소했다.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이어지면서 업계에선 커피 산업의 성장에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2분기 주류·담배 지출은 2만7587원으로 작년(2만7969원)보다 1.37% 감소했다.

담뱃값 지출은 1만7424원으로 6.4% 줄었지만, 술값 지출은 1만163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8.7% 늘었다.

/연합뉴스

수입생수·탄산수 가격 폭리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 비싸게 팔아

김현숙 의원 국감서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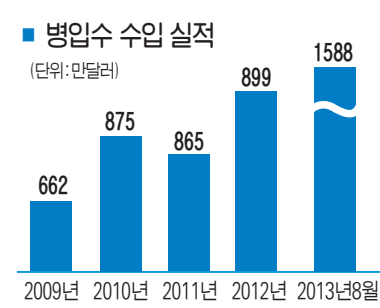
수입 생수와 수입 탄산수가 수입원가보다 최대 8배가량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우리나라 병입수 수입현황'과 '2012년 먹는샘물 수입현황', '최근 3년간 수입 탄산수 1~10리터형'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먼저 최근 5년간 병입수 수입실적을 보면, 2009년 662만 달러에서 2010년 875만 달러로 늘었다가 2011년 865만 달러로 주춤하는 듯했으나, 2012년 899만 달러로 증가하더니 2013년 8월 현재 1588만 달러로 급증했다.

이렇게 국내 들어온 생수의 시중 유통가격은 수입단가보다 훨씬 높았다. 이를테면 오스트리아산 와일드알프 베이비워터(1000ml)는 수입가격(관세포함)이 1병당 447원이었지만, 시중에는 8.4배나 높은 3750원에 팔리고 있었다.

캐나다 생수인 캐나다이스 아



이스플드(500ml)의 수입단가(관세포함)는 248원이지만, 시중 판매가격은 8.1배 높은 2000원에 판매됐다.

수입 탄산수도 마찬가지였다. 독일산 게를 슈타이너 스프루델(330ml)의 수입단가(관세포함)는 347원이지만, 시중에는 이보다 7.2배 높은 2500원에 유통됐다.

김 의원은 "비싼 만큼 영양가가 높거나 특별한 맛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를 검증할 절차도 기준도 없어 소비자는 제품광고 이미지에만 끌려 살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폭리를 취하는 특정 수입제품에 국한해 수입단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목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담판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 서구 352-7788 | 남구 676-7719 | 북구 512-7998

목포(삼화) 274-5987 | 목포(건영) 243-7463 | 순천 744-8605 | 여수 654-7755

(주)칠만공사/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돌잔치, 피로연, 칠순연, 세미나, 각종행사 (100석, 90석, 68석 40석28석, 16석 룬반비)

| 구분 | 영업시간 | 성인(음주포함) | 취약어린이(음주포함) | 미취약어린이(음주포함) |
|-------|-------------|----------|-------------|--------------|
| 평일 | 11:30~22:00 | 25,000원 | 12,000원 | 8,000원 |
| 토일공휴일 | 11:30~22:00 | 29,000원 | 18,000원 | 12,000원 |

유스퀘어 2층
예약 및 문의 : 062)671-1199

유스퀘어점 YONAMJA

| | | |
|---|---|---|
| 매콤한 요양자 필라프 YONAMJA Spicy sauce pilaf ₩7,900 | 몽골레 YONGOLE ₩10,800 | 베이컨 카르보나라 Bacon Carbonara ₩10,800 |
| 밀라노식 허브 크리스피 치킨 스테이크 Milano herb crispy chicken steak ₩10,800 | 핫 스파이스 오렌지 소스 포크 스테이크 Hot Spicy Orange Sauce pork steak ₩10,800 | 허니고르곤졸라 피자 Honey gorgonzola pizza ₩12,900 |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 : 062)673-7979